

룻기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에 브랴트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지 십년 즈음에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8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 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12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13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사를 쥌겠나이다' 나옴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어다' 하매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사를 쥌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뉘 소년냐?'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옴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사를 쥌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사를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거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10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3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하셨나이다'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볍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룻이 이사를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
 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줍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
 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
 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
 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에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
 다'
 22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
 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
 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3

1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
 느냐?
 2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
 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일을 내게 고하
 리라'

5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9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10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풀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 내 딸아, 두려워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자나 무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14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15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16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17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말라 하더이다'

18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4

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2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십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4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할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무르려면 두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무르리라'

5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6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7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료와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
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
지라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
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
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